

투데이 칼럼

김영란법의 식사비 상향조정에 붙여

지난달 27일부터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식사비 가격 한도가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김영란법은 2015년 3월 27일 법률 제13278호로 제정되어 공포됐고, 2016년 9월 27일부터 시행됐다.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던 김영란 전 대법관이 법을 입안하여 국회에서 통과된 법으로 국회 논의 과정을 거치며 김영란 전 대법관이 처음 시도한 내용과는 많이 다르게 됐지만 당시 청탁이 판치는 무질서한 사회를 정화시킬 중요한 법으로 인식됐다.

처음 이 법이 제정되었을 당시 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제한됐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되는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공직사회를 비롯한 사회에는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우선 첫째, 기존 흥청망청 접대 문화에서 저렴한 접대로 접대 문화의 변화로 인해 식사 접대 3만원, 선물 5만원으로 상한 금액이 제한됐다. 이에 따라 기업

들의 접대 문화가 무제한 비용에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변하게 되어 기업의 비용 절감과 함께 청렴한 사회 분위기 조성 과 함께 건전한 경제 발전에 이바지했다고 본다.

둘째, 공직자의 청렴성 강화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인해 공직자의 금품 수수와 부정 청탁이 금지됐다. 이에 따라 공직사회의 청렴성이 크게 강화됐고, 이에 따라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고 본다.

셋째, 우리 사회의 투명성 향상 과 함께 청렴과 공정에 대한 인식이 변화가 있었다. 이 법 시행으로 부정 청탁을 하는 행위와 금품 수수 행위가 크게 줄어들면서 전반적으로 사회적 투명성이 크게 강화됐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해 대외 신뢰도가 높아졌다고 본다.

이 법이 처음 시행되자 실제로 당시에는 지인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화환 하나도 마음대로 못 보내는 등 공직자들이 몸조심을 많이 하게 했었다. 이 법으로 인해 공직자 등이 위촉된 행동으로 인해서 고급 음식점과 꽃집, 정육점, 수산물 가게, 농산물 가게 등이 직격탄을 맞아 경기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변화가 일어났다. 그렇지만 한국 사회가 투명 사회가 되는 분위기 조성에는 한몫을 했다고 본다.

그러나 이 법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2017년에 개정을 하게 되는데, 농수축산물 선물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되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히려 하청됐다.

그 이후 최근에는 또다시 농수축산물은 가격이 15만원으로 인상되고 명절에는 30만원까지 금액을 올려 명절 전 한 달간의 기간을 정해 선물을 주고받도록 허가해 농어민과 축산인들이 생업에서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조정했었다.

벌써 김영란법이 생긴 지 어느덧 10여 년이 되는 동안 물가도 많이 올랐고, 이제 식사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게 되었다.

이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외부 식당에서 식사하는 데 부담감이 적어졌다고 보며, 시행령 개정으로 금액을 5만원까지 허용해 주게 되니 식당에서 매출이 늘어나는 등 가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 경기회복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가 신뢰와 공정의 사회가 되도록 하는 인식변화에 크게 기여한 김영란법이 앞으로 더 잘 준수돼 제정 취지에 맞게 맑고 청렴한 공정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온 국민이 이 법을 지키게 됨으로써 대한민국의 위상이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좋을 정도로 수준 높은 나라로 더욱 성장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이만호

본보 정치부장

사설

희망고문 공공의대법

그동안 번번이 고배를 마신 공공의대법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국가가 예산과 운영을 온전히 맡는 기존 안에서 한 발 물러서 지자체도 공동 참여하는 등 설립요건을 완화했다.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의 강한 추진 의지에도 의정 갈등 속 지자체 경쟁까지 더해져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남원 공공의대 부지는 전체 6만 4,000여 제곱미터 가운데 절반 가량만 확보됐고 추가 매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안 통과가 번번이 무산되면 서 올해는 설계비 예산조차 세워지지 않았다.

이는 남원 8만 인구가 다 원하는 것이다. 상경하고 또 삭발투쟁하고 그러면서 20대 국회를 지나 21대 국회에서 꼭 이뤄지길 간절히 원했다.

이미 두 차례 날개가 꺾인 공공의대법은 설립 요건을 완화해 다시 추진된다. 기재부의 반대를 감안해 국가가 예산과 운영을 도맡는 국립이 아닌,

지자체도 함께 참여해 의대를 설립하도록 했다.

또 의학전문대학원에 국한하지 않고 의과대학으로 개교가 가능하도록 설립 범위를 넓혔고 지역 인재를 60% 이상 발하도록 명시했다. 민주당 당론 추진에 걸맞게 70여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역의료나 필수 의료 보장하지 않으면 지역의 의료시스템이 지금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법사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고 야당이 국회 과반을 점하고 있어 분회의 통과도 가능하다.

의대 증원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집중 포화를 받지 않아도 됐다. 공공의대 문제에 난색을 보일 뿐 적극 나서지 않고 있고 의사 단체의 반대도 여전한기 때문이다.

경북과 전남 등 다른 지역도 공공의대 성격의 의대 신설안을 내놓고 있어 물밑 경쟁도 예상된다.

새만금 2차전지 고열도

2차전지 특화단지인 새만금 국가 산업단지에 관련 기업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하지만 2차전지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고열도 폐수 처리 방식을 두고 여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는 전북 새만금을 2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이후 지금까지 새만금 산업단지에 투자를 약속한 2차전지 기업은 모두 22곳에 이른다.

오는 2028년 2차전지 대부분의 공장이 가동을 시작하면, 하루 평균 9만여 톤의 고열도 폐수가 배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기업별로 기준치에 맞게 폐수를 자체 처리한 뒤, 공동 방류관으로 배출하겠다는 입장이

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적 기준을 확립해서 그 기준대로 방류는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기업 쪽에서 점검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공공 쪽에서 점검한다고 말

했다.

한편 올 여름 피악벌 아래 전북의 어린 1천여 명이 모였다. 폐수 방류 문제로 전북 어린이들이 총괄기에 나선 것이다. 일부 어린이들은 삭발을 하며, 고열도 폐수를 방류하면 해양 생태계가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또, 정확한 열도 기준도 없이 엄격한 관리 감독이 어렵다며 폐수 방류에 거세게 반발했다. 한편 현행법에는 업체가 배출 허용 기준만 충족하면 폐수를 바다로 방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기준이 되는 53개 항목 외 다른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이미 경북 포항 등지에서도 2차전지 폐수 방류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다.

정부가 지역 어린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환경오염 논란을 어떻게 해소할지 주목된다. 정부는 소극적으로 나선 일이 아니다. 오염 대비책부터 강구하기 바란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조코위 대통령 만나 연설하는 프란치스코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왼쪽)과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4일(현지시각) 자카르타 이스타나 메르데카 대통령궁에서 회담하면서 연설문을 낭독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조코위 대통령과 함께 현지 당국, 시민사회, 외교단과의 회담에 참석하면서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

명예의 거리 헌액, 소감 말하는 팀 버튼 감독



팀 버튼 감독이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에 헌액돼 3일(현지시각)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버튼 감독은 '배트맨' '귀울' '크리스마스 악몽' '찰리와 초콜릿 공장' 등의 영화로 유명하며 현재 '비틀쥬스 비틀쥬스'가 상영 중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